

# 타이완 원주민 부눈족 언어의 한글 서사체계

全廣鎭\*

---

## ◁ 목 차 ▷

- I. 서론
  - II. 부눈어 개황
  - III. 부눈어의 음운 체계
  - IV. 한글 서사 방안 검토
  - V. 부눈어 한글 서사체계
  - VI. 부눈어 한글 서사 예시
    - 1. 음절구조별 예시
    - 2. 문장 예시(10)
    - 3. 기본 어휘(총 165개)
  - VII. 맺음말
- 

## I. 서론

21세기에 접어든 문명사회에서 아직도 문자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민족들을 위하여 한글 서사학의 혜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의 일환으로 무문민족의 언어에 대한 서사학적 연구를 계속해 왔다. 2009년에는 타이완 섬의 10개 원주민 언어<sup>1)</sup>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한글 서사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이 부눈족 언어였다. 모음과 음절 구조 두 가지 면에서는 각각 100% 서사가 가능하며, 머리자음은 86%, 꼬리자음은 64%, 총 평균 88%라는 높은 적합성이 증명되었다<sup>2)</sup>. 이를 바탕으로 동 언어에 대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사용 인구가 100명도 채 안 되는 카바란어(Kavalan), 타오어(Thao), 파제호어(Pazeh)를 포함하면 13종 언어인데, 이들 언어는 소멸 직전에 있기 때문에 서사체계 수립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 한글서사 방안을 2009년 10월 9일 개최된 훈민정음학회 2009년도 전국학술대회(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초고 형태로서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대 재검토하고자 본고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화민국 정부에서 개발한 서사체계가 있음을 몰랐다. 2005년 12월에 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와 教育部가 공동으로 펴《原住民族語言書寫系統》(이하 “原民會 2005”라 약칭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sup>3)</sup>. 총 22페이지에 불과한 소책자이지만, 13개 原主 民族의 언어에 대한 로마자모 서사체계를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2003년 12월 12일부터 5차례 회의를 거쳐 완성된 이 서사체계는 “문자 서사의 경제성, 일치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원칙<sup>4)</sup>”에 입각한 것이지만, 로마자모 병음 체계의 정확성이 대체로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평<sup>5)</sup>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각 민족의 언어에 대하여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서사 문자를 열거하고 국제음표와 대비만 해 놓고, 몇 가지 간단한 주를 통하여 부연 설명을 해놓았을 따름이다. 즉 어휘나 문장에 대한 서사 예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서사체계라기보다는 초안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부눈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수립하여 서사 정확성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 II. 부눈어 개황

부눈족의 인구는 약 41,150명으로 10개 원주 민족 가운데 4번째로 많다<sup>6)</sup>.

- 2) 그 밖의 다른 언어들의 한글 서사 적합도를 서열대로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②루카이어(魯凱, 85%), ③야미어(雅美, 83%), ④세덕어(賽德克, 83%), ⑤찌우어(鄒語, 78%), ⑥푸유마어(卑南, 77%), ⑦파이완어(排灣, 75%), ⑧사이시앗어(賽夏, 75%), ⑨아미스어(阿美69%), ⑩아타얄어(泰雅, 66%). 필자는 이러한 언어에 대하여 차례로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3) 2010년 9월에 본교 교환 교수로 부임한 대만정치대학교 丁敏 교수의 도움으로 이토록 귀중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기에 그 감사함을 이에 표해둔다.
- 4) “務求書寫文字經濟性、一致性與方便性的原則”(原民會 2005, 6).
- 5) “羅馬拼音系統的正確性大概只能達到80%”(原民會 2005, 3).
- 6) 인구 통계는 다니엘스(2006, 277)에 의거한 것인데, 이는 1997년도 통계이므로 현재는

타이완 섬에서 주로 中南東部에 분포되어 있는데, 중부는 南投縣 仁愛鄉과 信義鄉, 남부는 高雄縣 桃源鄉과 三民鄉, 동부는 花蓮과 台東縣에 이르는 지역<sup>7)</sup>에 해당된다.



1935년 臺北帝國大學의 土俗人類學系研究室에서 出版한《台灣高砂族系統所屬研究》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霍斯陸曼·伐伐 2002, 231). ① 卓社群(Take Todo, 南投縣 玉山 一帶), ② 卡社群(Take Bakaha, 南投縣 동부 산악지대), ③ 巒社群(Take Banua, 南投縣과 嘉義縣 경계의 玉山 一帶), ④ 丹社群(Take Vatan, 南投縣과 花蓮縣의 경계 지역), ⑤ 郡社群(Isi Bukun, 高雄縣과 台東縣의 산악지대), ⑥ 蘭社群(Takopulan, 南投縣. 鄒族과 混血, 후에 鄒族에 동화되어 소멸됨). 이상 6개 부족 가운데 鄒族에 동화된 蘭社群(Takopulan)을 제외한 5개 부족에 대하여, 일본의 지리인류학자인 鹿野忠雄이 언어, 문화, 풍속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분류 하였다. ① 북부 부눈족 : 卓社群(Take Todo), 卡社群(Take Bakaha), ②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7) 부눈어 지리분포(그림)은 台灣南島語言叢書의 해당 언어편(齊莉莎 2000) 표지에 있는 것을 스캔한 것이다.

중부 부눈족 : 丹社群(Take Vatan), 巒社群(Take Banuao), ③ 남부 부눈족 : 郡社群(Isi Bukun)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3대 분류법을 原民會(2005, 11)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북부 방언, 중부방언, 남부방언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세 방언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 Ⅲ. 부눈어의 음운체계

부눈어의 음운체계가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는 李壬癸(1991), 齊莉莎(2000), 原民會(2005) 이상 3종 저작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음운체계만 있을 따름인데, 마지막 하나는 음운체계와 서사체계<sup>8)</sup>를 겸하는 셈이다. 여기에서는 음운체계를 종합하여 재정리하려는 뜻에서 3종 저작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1. 李壬癸(1991)

부눈어의 음운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 것은 李壬癸(1991)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교육부의 위탁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15개 원주 민족에 대하여 서사 체계가 아닌 “語音符號系統”을 열거한 것으로 이에 옮겨 보자면 아래와 같다(자음 16개와 모음 3개).

8) 부눈어에 대한 기존의 서사체계로는 原民會(2005) 말고 中華民國聖經公會가 제정 반포한 것이 余錦豪·歐陽玉(2002, 296)에 간단한 표로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음 14개(b, d, z, g, h, k, l, m, n, p, s, t, v, ci), 모음 3개(a, i, u)에 대하여 로마자모가 배정되어 있다. 음운체계에 등장되는 소설파열음(q)와 후파열음(?), 설근비음(ng)이 없고 대신 g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음을 대표하는지가 확실하지 않고, 그 나머지 두 음소가 빠진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정식 서사체계로 설정하여 대비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순음	설첨음	설근음	소설음	후음
파열음	p	t	k	q	ʔ(ʻ)
	b	d			
파찰음		c			
마찰음		s			h
	v	ð(z)			
설측음		l			
비 음	m	n	ŋ(ng)		

	前	央	後
高	i		u
中			
低		a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 ① p, t, k, q, ʻ 는 무기-무성-파열음인데, 남부 방언에는 q가 없다.
- ② b, d는 앞쪽에 喉파열음을 지니고 있는 유성 파열음 [ʼb, ʼd]이다.
- ③ 설첨-무성-파열음 ts를 c라 적었다. 북부 방언(曲水, 武界, 過坑, 潭南 각지) 구역에서는 c 와 s를 구분하지만, 남부 방언에서는 c가 모음 i 앞에서만 출현된다.
- ④ s는 구개음화된 무성 마찰음 [ʃ]로 발음된다.
- ⑤ h는 북부와 남부 방언에서는 모두 喉마찰음인데, 남부방언에서는 小舌 마찰음인 [χ]로 발음한다.
- ⑥ 순치-유성-마찰음 v, 치간마찰음 z, 설측음 l이 남부방언에서 운미에 출현될 때에는 모두 무성음화 또는 무성음화 경향을 지니어 각각 f, θ, t 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남부로 갈수록 심하며, 남부 방언에서 어떤 설측음은 머리자음이든 꼬리자음이든 모두 무성음화되었다.
- ⑦ 각 방언에는 모두 세 개의 비음 m, n, ng가 있다.
- ⑧ 각 방언에는 모두 오직 세 개의 모음 i, u, a만 있다. 고모음 i와 u가 때로는 중모음 [e, o]로 가깝게 발음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이중모음 a

u, ai가 더 있다.

⑨ 반모음은 없다.

## 2. 齊莉莎(2000)

齊莉莎(2000)에 소개된 부논어 음운 체계는 남부방언에 속하는 南投縣 信義鄉 東埔村에 분포되어 있는 郡社(Isbukun) 부논어를 근거로 삼은 것이다. 1993년 2월에서 6월까지 현지 언어 조사를 토대로 하고 李壬癸(1991)를 참고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표로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순음	설첨음	설근음	소설음	후음
파열음	p	t	k		'[ʔ]
	b[b]	d[d]			
파찰음					
마찰음		s			h[x]
	v	z[ð]			
설측음		l			
비 음	m	n	ng[ŋ]		

	前	央	後
高	i		u
中			
低		a	

齊莉莎(2000)에 제시된 보충 설명 부분을 한글 서사에 참고가 될 사항만 발췌하여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t/는 고모음/i/앞에만 출현되며, 동일 발음 부위의 [tʃ]로 구개음화된다.  
/t/가 구개음화되어 [tʃ]로 발음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c로 기술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다.
- ② /b, d/는 각각 /p, t/의 유성음 짝인데, 발음될 때 모두 무기음이지만

그 앞에 喉과열음을 지니는 [ʼb, ʼd]로 발음된다.

- ③ /s/가 고모음 /i/의 앞에 출현될 때에는 동일 발음 부위의 [ʃ]로 변화한다.
- ④ 3개 모음 /i, a, u/ 가운데 /i, u/가 때로는 [e, o]에 가깝게 발음된다.

齊莉莎(2000)가 제시한 것은 모음은 李壬癸(1991)과 동일하지만 자음은 2개가 적은 14개<sup>9)</sup>라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齊莉莎(2000)로부터 알 수 있는 유익한 정보는 머리자음들이 운미(꼬리음)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과 음운 구조가 종류별로 예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한글을 통한 서사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음절 구조를 모르면 한글 서사체계를 제대로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절 구조별 예시를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CVC	mas	‘전치사’
CV-VC	vauʼ	‘8’
CV-CVC	pituʼ	‘7’
CVC-CVC	luvluv	‘바람’
CV-CV-VC	labian	‘저녁’

### 3. 原民會(2005)

原民會(2005)에 소개되어 있는 부눈어 음운 체계는 서사자모와 국제음표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며, 하나의 도표에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데 이에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9) 李壬癸(1991)에 비하여 2개가 적은 것은, 남부 방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음 /q/가 없고, /c/를 음소로 보지 않고 /t/의 변이음으로 본 결과이다.

자음 16개	서사자모	북부방언	중부방언	남부방언	국제음표
쌍순과열음(무성)	p	○	○	○	p
(유성)	b	○	○	○	b
설첨과열음(무성)	t	○	○	○	t
(유성)	d	○	○	○	d
설근과열음(무성)	k	○	○	○	k
소설과열음(무성)	q	○	○	-	q
후과열음 (무성)	'	○	○	-	ʔ
설첨과찰음(무성)	c <sup>(설명1)</sup>	○	-	○	ts
설치마찰음(유성)	v	○	○	○	v
설첨마찰음(무성)	s	○	○	○	s
치간마찰음(무성)	z	○	○	○	ð
설근마찰음(무성)	h <sup>(설명2)</sup>	○	○	-	x
소설마찰음(무성)		-	-	○	χ
쌍순 비음	m	○	○	○	m
설첨 비음	n	○	○	○	n
설근 비음	ng	○	○	○	ŋ
설첨설측음	l <sup>(설명3)</sup>	○	○	○	l
계	16	16	15	14	17

모음 3개	서사자모	모든 방언	국제음표
고모음	i	○	i
저모음	a	○	a
후모음	u	○	u
계	3	3	3

## ※ 설명

- ① 남부방언에는 음소 /c/가 없다. 이 방언에서는 /t/ 뒤에 모음 /i/가 오면 구개음화되어 [tci]가 된다. 그래서 이 방언 화자들은 습관적으로 “ci”라 쓴다. 이를 테면 tina(어머니)를 cina라 쓴다.
- ② 남부방언에서 h를 발음할 때 일반적으로는 소설-무성-마찰음 [χ]로 하지만, 때로는 설근-무성-마찰음 [x]로 발음하기도 한다.
- ③ 남부방언에서 /l/을 발음할 때, 유성음 [l] 또는 무성음 [ɬ]으로 발음한다.



- ④ “-”는 음절을 구분하는 부호로 쓴다. 이를테면 북부와 중부 방언의 tan-aʼ(듣다) 및 남부방언의 ta-aza(듣다)가 그렇다.
- ⑤ 부눈어의 외래어 어음을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시 e, o 두 개의 모음을 설정해 놓는다.
- ⑥ 부눈어 5종 방언에 쓰이는 이중모음은 총 9개가 있다 : ai, au, ia, iu, ua, ui, aa, uu, ii.

原民會(2005, 11)의 보충 설명 가운데, ①②③번 세 가지는 李壬癸(1991)와 齊莉莎(2000)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것이다. ④번은 음절 경계 표시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단지 두 가지 예만 있을 따름이다. 이를 통하여 음절 구조를 종류별로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⑤번 항목은 외래어에 등장되는 모음임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 자못 안타깝다. ⑥번 항목은 李壬癸(1991)와 齊莉莎(2000)에는 없는 매우 유익한 정보이다. 한글 서사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 IV. 한글 서사 방안 검토

한글 서사체계를 개발하기에 앞서 반드시 원칙을 세워 두어야 한다. 이전에 로바어와 어윙키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고안할 때 적용한 네 가지 원칙(전광진 2002: 2003)을 부눈어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기에 아래에 옮겨 보기로 하자.

첫째, 대응 한글 자모의 선정은 음성학적 유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자모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다면 ‘옛 한글 자모’도 취할 수 있다.

셋째, 보조 기호의 사용은 최소화한다. 이 원칙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넷째, 대상 언어의 음절 구조를 최대한 존중한다.

이상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부눈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을 조목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1. 머리자음의 서사

부눈어의 모든 방언에 대한 서사 방안을 강구하자면, 머리자음의 총수는 16개인 바, 이 가운데 1차적으로 큰 무리 없이 서사할 수 있는 것은 이하 11개이다.

/p/[ㅍ], /t/[ㅌ], /k/[ㄱ]  
 /b/[ㅂ], /d/[ㄷ]  
 /s/[ㅅ], /z/[ㅆ], /h/[ㅎ]  
 /l/[ㄹ],  
 /m/[ㅁ], /n/[ㄴ]

2차적으로 다음 5종 자음의 한글 서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q/[ㅋ], /ʔ/[ㆁ], /c/[ㅈ], /v/[ㅊ], /ng/[ㅇ]

/q/[ㅋ]과 /ʔ/[ㆁ]을 서로 바꾸어서 서사할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하든 음성학적 유사성과는 다소 문제가 따른다. 다만 한글을 한국어 자음의 발음과 100% 연결짓지 않아도 된다는 융통성을 고려한다면, /ㅋ/이라 서사하고 [q]로 읽도록 하면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점은 /c/[ㅈ]과 /v/[ㅊ]도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특히 /v/의 경우, 훈민정음 자모 [ㅃ]로 서사하는 ①안과 현용 자모 [ㅊ]으로 대체하는 ②안이 있을 수 있다. ①안은 음성학적 유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컴퓨터 입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②안은 음성학적 유사성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머리 자음에 [p<sup>h</sup>]가 없기 때문에 충돌될 소지가 없고, 컴퓨터 입력이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②

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ɸ/의 음가가 무성유기음 [p<sup>h</sup>]가 아니라 유성무기음 [v]로 읽도록 교육하면 될 것이다. /ng/은 현용 자모로 대응시킬 방법이 없어 부득이 훈민정음 자모 [ㅇ]로 서사하기로 한다.

## 2. 모음의 서사

단모음 3개(i, u, a)는 각각 [ㅣ], [ㅍ], [ㅏ]로 서사하면 하등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이중 모음(9개), 즉 ai, au, ia, iu, ua, ui, aa, uu, ii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ia/, /iu/, /ua/는 각각 [ㅑ], [ㅓ], [ㅕ] 한 음절로 서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다. /aa/, /uu/, /ii/에 대하여는 장음 표시(:)를 활용하여 각각 [ㅑ:], [ㅓ:], [ㅕ:]로 서사하는 ①안과 음절을 구분하여 서사하는 ②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잠정적으로 ①안을 채택하기로 하겠다. 나머지 /ai/, /au/, /ua/는 臺灣族群母語推行委員會(2005)의 방법<sup>10)</sup>을 인용하여 각각 [ㅑ], [ㅓ], [ㅕ]로 적고 각각 ai, au, ua로 읽게 하는 ①안과 아예 2음절로 분리시키는 ②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①안을 취하기로 한다.

## 3. 꼬리 자음의 서사

齊莉莎(2000, 42)에 따르면, 남부 방언의 꼬리자음 14개 모두 종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한다<sup>11)</sup>. 그렇다면 이것 가운데, 큰 무리 없이 당장 한글 서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이하 11개이다.

10) 臺灣族群母語推行委員會(2005)는 모음을 5개, a, i, u, e, o를 설정하고, e와 o를 쌍모음, e는 ai로, o는 au로 각각 읽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11) 李壬癸(1991)와 原民會(2005, 11)의 음운체계에서는 16개의 자음이 설정되어있는데, 이 가운데 /c/([ʦ])는 머리자음에만 등장되는 변이음이므로 꼬리자음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북부와 중부방언에만 등장되는 자음인 /q/은 꼬리자음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자음과 동일하게 [ㄱ]으로 서사하기로 한다.

/-a' / [악], /-ub/ [웁], /-ud/ [운], /-is / [잇], /-uv/[웁]  
 /-ah/[양], /-az/ [앗], /-um/ [웁], /-un/ [운], /-al/ [알]

나머지 4개 가운데, /-ang/ 같은 운미를 [양]이라 서사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다. 훈민정음 자모 [ㅇ]로 서사한 머리자음 /ng/와 달리 [ㅇ]로 서사 하더라도 충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글 맞춤법상 꼬리자음으로 서사할 수 없는 것 [ㅃ], [ㅆ] 두 가지가 문제다. 즉, /-up/와 /-ut/를 한 음절로 서사할 수가 없기에 부득이 각각 [우ㅃ]와 [우ㅆ]로 서사하기로 한다. /-uk/의 경우에는 [웁]으로 서사할 수 있으나, 동일 계열의 자음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ㄱ]로 서사하기로 한다. 다만 [-ㅃ], [-ㅆ], [-ㄱ]는 앞 음절의 꼬리자음으로 붙여서 읽도록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부눈어 한글 서사체계

	로마자 자모	국제 음표	한글자모 (머리음)	한글자모 (꼬리음)	비고
쌍순파열음(무성)	p	p	ㅃ	ㅃ	
(유성)	b	b	ㅂ	ㅂ	
설첨파열음(무성)	t	t	ㅌ	ㅌ	
(유성)	d	d	ㄷ	ㄷ	
설근파열음(무성)	k	k	ㄱ	ㄱ	
소설파열음(무성)	q	q	ㅋ	ㅋ	
후파열음 (무성)	'	ʔ	ㆁ	ㆁ	
설첨파찰음(무성)	c	ts	ㅈ	—	
설치마찰음(유성)	v	v	ㅉ	ㅉ	
설첨마찰음(무성)	s	s	ㅊ	ㅊ	
치간마찰음(무성)	z	ʃ	ㅌ	ㅌ	
설근마찰음(무성)	h	x	ㅎ	ㅎ	
소설마찰음(무성)		x			

	로마자 자모	국제 음표	한글자모 (머리음)	한글자모 (꼬리음)	비고
쌍순 비음	m	m	ㅁ	ㅁ	
설첨 비음	n	n	ㄴ	ㄴ	
설근 비음	ng	ŋ	ㅇ	ㅇ	
설첨설측음	l	l	ㄹ	ㄹ	
계	16	17	16	15	

	한글자모		한글자모
i	ㅣ	ua	ㅍ
u	ㅓ	ai	ㅑ
a	ㅏ	au	ㅓ
ia	ㅑ	aa	ㅏ:
iu	ㅓ	uu	ㅓ:
ui	ㅑ	ii	ㅣ:

## VI. 부눈어 한글 서사 예시

어떤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음운체계만 사전에 조사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수립된 서사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장이 사전에 채집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李壬癸(1991)와 原民會(2005)에는 음운체계만 소개되어 있을 뿐 어휘나 문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齊莉莎(2000)는 음운체계에 아울러 많은 어휘와 문장이 국제음표로 채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한글자모를 활용한 새로운 서사체계를 적용한 예시는 모두 齊莉莎(2000)에 수록된 어휘와 문장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1. 음절구조별 예시(5)

CVC	mas	[맛]	'전치사'
CV-VC	vau'	[파욱]	'8'

CV-CVC	pitu'	[삐뚝]	'7'
CVC-CVC	luluv	[룽룽]	'바람'
CV-CV-VC	labian	[라반]	'저녁'

## 2. 문장 예시(10)

- ① minaun saikin takna' mas 'utan  
 미논 세깐 따끄낙 맛 구탄  
 [ 吃過 我 昨天 斜格 地瓜 ]  
 '먹었다' '나' '어제' 전치사 '고구마'  
 '我昨天吃地瓜'  
 "나는 어제 고구마를 먹었다."  
 『미논 세깐 따끄낙 맛 구탄』

- ② kaihuzas saikin takna'  
 깨후жат 세깐 따끄낙  
 [ 唱過歌 我 昨天 ]  
 '노래불렀다' '나' '어제'  
 '我昨天唱過歌'  
 "나는 어제 노래를 불렀다."  
 『깨후жат 세깐 따끄낙』

- ③ kalat 'asu' saitan  
 까라뜨 가숙 세탄  
 [ 咬 狗 他 ]  
 '물다' '개' '그'  
 '狗咬他'  
 "개가 그를 물었다."  
 『까라뜨 가숙 세탄』

④ mama' tina' 'uvaztin

마막 띠낙 구왓띤

[ 背 媽媽 那小孩]

'업다' '엄마' '이 아이'

'媽媽背這個小孩'

"엄마가 이 아이를 업었다".

『마막 띠낙 구왓띤』

⑤ bunun 'a' 'alang

부눈 각 가랑

[ 布農人 主格 男子名]

'부눈인' '주격' '이름'

'alang是布農人'

"가랑은 부눈 사람이다".

『부눈 각 가랑』

⑥ mama' 'a' tina' 'uvaz

마막 각 짜낙 구왓

[ 背 主格 媽媽 小孩]

'업다' '주격' '엄마' '아이'

'媽媽背小孩'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다".

『마막 각 짜낙 구왓』

⑦ madu' 'alang mas 'inak tu 'uvaz

마дук 가랑 맛 기나끄 뚜 구왓

[ 喜歡 男子名 斜格 我的 小孩]

'좋아한다' '이름' '전치사' '나의' '어린이'

“alang喜歡我的小孩”  
 “가랑은 나의 아이를 좋아 한다.”  
 『마дук 가랑 맛 기나끄 두 구팃』

⑧ madu' kasu' 'alang  
 마дук 까숙 가랑  
 [喜歡 你 男子名]  
 ‘좋아한다’ ‘당신’ ‘이름’  
 ‘你喜歡alang’  
 “당신은 가랑을 좋아한다.”  
 『마дук 까숙 가랑』.

⑨ 'uka' puah sia' huma'  
 구깍 뿌앙 시악 후막  
 [沒有 花 在 田裏]  
 ‘없다’ ‘꽃’ ‘-에’ ‘밭’  
 ‘田裏沒有花’  
 “밭에는 꽃이 없다.”  
 『구깍 뿌앙 시악 후막』

⑩ 'uka' 'inak 'uvaz  
 구깍 기나끄 구팃  
 [沒有 我的 小孩]  
 ‘없다’ ‘나의’ ‘아이’  
 ‘我沒有小孩’  
 “나는 아이가 없다.”  
 『구깍 기나끄 구팃』



### 3. 기본어휘 예시(165개)

#### 1) 숫자

'1'	tasa'	(따삭)	'2'	dusa'	(두삭)
'3'	tau'	(따옥)	'4'	paat	(빠:뜨)
'5'	hima'	(히막)	'6'	nuum	(눔:)
'7'	pitu'	(삐뚝)	'8'	vau'	(파옥)
'9'	siva'	(시팍)	'10'	mas'an	(맛간)
'100'	tastusaba'	(땃뚜사박)			

#### 2) 일반 어휘

(가릿관)	'가까운'	'aliskuan	(가상)	'마을'	'asang
(가팔)	'날다람쥐'	'aval	(구라뜨)	'근육'	'ulat
(기강)	'마음'	'i'ang	(기푸땃)	'벌레'	'ivutaz
(깃갓)	'바늘'	'is'as	(깃들)	'소면'	'isdul
(까라뜨)	'물다'	kalat	(끗뻬)	'날다'	kusbai'
(나히)	'얼굴'	dahis	(다눔)	'물'	danum
(단:)	'길'	daan	(가부한)	'배부른'	'abuhan
(가숙)	'개'	'asu'	(구낫)	'가다'	'unas
(구팍)	'아이'	'uvaz	(기막)	'손'	'ima'
(기푸뜨)	'뱀'	'ivut	(깃간:)	'물고기'	'iskaan
(까까풀)	'갈고리'	kakavul	(까훗앗)	'노래하다'	kahuzas
(나웅)	'고양이'	naung	(넛뚝)	'아래'	nastu'
(다랄)	'땅'	dalah	(다퓏)	'술'	davus
(달판)	'먼'	dahvian	(따가작)	'듣다'	ta'aza'

(따름)	‘대나무’	talum	(따막)	‘아빠’	tama’
(딴끼놋)	‘뒤’	tankinuz	(뚜루꾸꼬)	‘닭’	tulukuk
(뿔믹)	‘실’	tulmi’	(띠깃)	‘모기’	tikas
(띠낙)	‘엄마’	tina’	(띠말)	‘번개’	timal
(뒋다단)	‘달리다’	tisdadan	(리밋)	‘뿌리’	lamis
(루꼬잇)	‘나무’	lukis	(루루부눈)	‘계란’	lulubunun
(룩음)	‘구름’	lu’um	(리낫)	‘짱’	linas
(마깃빨)	‘두꺼운’	makaspal	(마낫각)	‘가벼운’	manas’ak
(마닛빋)	‘얇은’	manisbis	(마다울울)	‘긴’	madauluh
(마따꾸낫)	‘던지다’	matakunav	(미똥항)	‘낮’	matushang
(마라픽)	‘뒤따르다’	malavi’	(마버퀄)	‘사다’	mabaliv
(마빠끄란)	‘굽다’	mapaklan	(마빠잇)	‘(맛이)쓴’	mapais
(마빠학)	‘넘어지다’	mapiha’	(미수꼴)	‘닫다’	masukud
(마숫북)	‘무거운’	masusbu’	(몹)	‘불다’	maub
(마하빈)	‘숨다’	mahabin	(말리박)	‘안다’	maliba’
(무똥)	‘구토하다’	mutah	(무무안)	‘과일’	mumuan
(목:)	‘당신들’	muu’	(둔:)	‘밭줄’	duun
(따깃)	‘대변’	taki’	(따막)	‘부친’	tama’
(따똥:)	‘모자’	tamuung	(똥악)	‘귀’	tanga’
(뚜맏)	‘곰’	tumaz	(똥낫)	‘뼈’	tuhnaz
(띠낙)	‘어머니’	tina’	(띠랏)	‘쌀’	tilas
(띠안)	‘배(腹)’	tian	(똥하인잇)	‘뛰어오르다’	tishainaz
(라앗)	‘고기’	laas	(루둔)	‘산’	ludun
(룩룩)	‘상처’	lu’lu’	(룽룽)	‘바람’	luluv
(리붓)	‘숲’	libus	(마꾸양)	‘나쁜’	makuang
(마눈훅)	‘앉다’	manunhu’	(마다목)	‘더듬다’	madamu’
(마똥똥)	‘어두운’	madumdum	(마따히)	‘바느질’	matahis
(마뜨깁)	‘생것의’	mat’ah	(마루달)	‘때리다’	maludah

(마바히)	‘뜨거운’	mabahis	(마빠냥)	‘쏘다’	mapanah
(마빠싱)	‘두려움’	mapising	(마사목)	‘꺼리다’	masamu’
(마수두끄)	‘날카로운’	masuduk	(몬)	‘먹다’	maun
(마하림)	‘건조한’	mahaliv	(만따따락)	‘기다리다’	mantatala’
(무다단)	‘가다’	mudadan	(무던꿀)	‘떨어지다’	mutinkul
(무악)	‘뱀장어’	mua’	(민후밋)	‘살아있는’	minhumis
(바나낫)	‘남자’	bananaz	(바랑)	‘갈비뼈’	balang
(바북)	‘돼지’	babu’	(반땃)	‘다리’	bantas
(부논)	‘사람’	bunun	(분분)	‘바나나’	bunbun
(빈뚜한)	‘별’	bintuhan	(빠리누뚝)	‘말하다’	palinutu’
(빠훤)	‘담즙’	pahav	(뿌끄뚝)	‘다람쥐’	puktu’
(빠악)	‘얼마’	pia’	(사뚝)	‘보다’	sadu’
(삭:)	‘냄새맡다’	saak	(사피끼)	‘빈랑나무’	saviki’
(수숙)	‘가슴’	susu’	(송하홀)	‘수영하다’	sunghahaul
(시막)	‘누구’	sima’	(시물)	‘빌리다’	simul
(시쁘다뜨)	‘들러붙은’	sipdat	(안따람)	‘대답하다’	antalam
(파늑)	‘벌꿀’	vanu’	(팡랏)	‘강’	vanglaz
(하니팔팔)	‘무지개’	hanivalval	(하링악)	‘언어’	halinga’
(하시빠)	‘거북이’	hasipa’	(한팡)	‘사슴’	hanvang
(후악)	‘가래’	hua’	(훤:)	‘마시다’	huud
(훅단)	‘비’	hu’dan	(바뚝)	‘돌’	batu’
(바바룩)	‘비둘기’	babalu’	(바후삿)	‘별’	bahusaz
(방룩)	‘새로운’	bahlu’	(부안)	‘달’	buan
(붕똥)	‘무릎’	buhtung	(빠뜨늘)	‘가리키다’	patnul
(뵙:)	‘벼’	paaz	(빠디안)	‘반찬’	pandian
(빠나샹)	‘다리’	pinasah	(사나판)	‘밤’	sanavan
(사뵙)	‘불’	sapuz	(사이끼)	‘나’	saikin
(삿비낫)	‘두목’	sasbinaz	(숙:)	‘당신’	suu’

[시덕]	‘양(羊)	sidi’	[시말]	‘살찐’	simal
[시붓]	‘사탕수수’	sibus	[시혁]	‘가지’	sihi’
[жат:]	‘모래’	zaas	[파닛]	‘멧돼지’	vanis
[하누쁘]	‘사냥하다’	hanup	[하루악]	‘거머리’	halua’
[하북]	‘먼지’	habu’	[하잠]	‘새’	hazam
[후막]	‘밭’	huma’	[후앗]	‘등나무’	huaz
[홍:]	‘버섯’	huung	[홀북]	‘머리카락’	hulbu’

## VII. 맺음말

무문민족의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의 창안은 먼저 해당 언어에 대한 음운체계가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부논어의 음운체계에 대해서는 다행히 李壬癸(1991), 齊莉莎(2000), 原民會(2005)의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 각각의 음운체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으로 말미암아 그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그 3종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비로소 한글 서사의 기반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었다. 그것을 토대로 부논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JHB System)를 창안함에 있어서, 예상했던 대로 큰 문제점이 야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은 굳이 문제라면 문제라 할 수 있겠기에, 훗날 더욱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一助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나하나 以實直告해 보기로 한다.

(1) 현용 자모로 부족하여 훈민정음 자모를 활용한 것 : / ㅅ /

(2) 한글의 기본 음가와 다른 점이 있는 것

ㅅ [ʃ]	: [ɟ]	[수웁]	‘당신’	suu’
ㅂ [b]	: [ɓ]	[마바히]	‘뜨거운’	mabahis
ㄷ [d]	: [d̥]	[띳다단]	‘달리다’	tisdadan
ㅎ [x]	: [h]	[마눈혹]	‘얕다’	manunhu’

ㅍ [v] : [p<sup>h</sup>] (다똥) '술' davus

ㅈ [ɖ] : [dʒ] (따가작) '듣다' ta'aza'

(3) 꼬리음에 대하여 음절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음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

ㅃ [-p] (하누쁘) '사냥하다' hanup

ㅆ [-t] (기푸뜨) '뺨' 'ivut

ㄱ [-k] (뚜루꾸끄) '닭' tulukuk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성이 80% 밖에 되지 못된다고 하는 原民會(2005)의 로마자모 서사체계에 비하여, 이 한글자모 서사체계가 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지인들에게 직접 활용해 보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눈어 한글 서사 예시를 齊莉莎(2000)에만 적용해 보았는데, 이것은 편폭상의 제한으로 부득이한 것이었다. 앞으로 台灣族群母語推行委員會(2006, 2008)와 林道生(1998)<sup>12)</sup>, 余錦豪·歐陽玉(2002), 霍斯陸曼·伐伐(2002, 188-228) 등에 소개되어 있는 회화, 전설, 신화, 속담, 동요, 생활가요 등에 적용시켜 본다면 '부눈어 한글 교과서'를 제작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한 것은 이런 부눈어 한글서사체계 시안을 현지인들에게 읽혀봄으로써 그 적합성을 직접 실험해 보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 일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필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뜻있는 인사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리고 '愚公移山'과 '有志竟成'이란 말을 음미해보면서 시안 성격의 줄고를 맺는다.

12) 林道生(1998)에는 부눈족의 동요, 생활가요, 제사가요 등 64곡이 악보와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가사가 로마자모로 적혀 있기에 이를 한글로 서사하여 현지인들에게 읽혀 보면 한글 서사의 유용성을 실험하기에는 안성맞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에 대하여도 훗날을 기약해 본다.

## 【參考文獻】

- 김주원 등 2008 《사라져 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 다니엘스(2006)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집단(가오산족)〉, 《중국소수민족입문》(李妍周 등 번역, 서울: 현학사), 273-281.
- 이현복 1981 《국제 음성 문자와 한글 음성 문자》, 과학사.
-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2008a 〈오로첸어 한글표기〉 (미발표 원고 파일).
- 2008b 〈오로첸어 분석표〉 (미발표 원고 파일).
- 전광진 2001 〈중국 내 소수민족(55) 언어의 지리 분포와 유형학적 특징〉, 《중국문학연구》 22, 343-367.
- 2002 〈중국 내 소수민족(55)의 서사체계 및 새로운 문자 창제〉, 《중국언어연구》 15, 195-228.
- 2003 〈로바어와 그 한글 서사법〉, 《중국언어연구》 17, 275-317.
- 2004 〈韓文的全球化: 珞巴語韓文書寫法的擬訂和推廣〉, 《韓國語文研究》(대만) 2, 173-193.
- 2008 〈중국경내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 방안 탐구〉, 《중국문학연구》 37, 423-443.
- 2009 〈타이완 원주민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법 개발 연구〉, 《중어중문학》 45, 351-388.
- 霍斯陸曼·伐伐 2002 《中央山脈的守護者: 布農族》, 稻鄉出版社(台北).
- 臺灣族群母語推行委員會 2006 《布農族語詞彙集》(認識巒群布農族語).
- 臺灣族群母語推行委員會 2008 《布農族語讀本》- 認識郡群布農族語.
- 林道生 1998 《花蓮原住民音樂①: 布農族篇》, 花蓮文化中心.
- 潘 英 1998 《臺灣原住民族布的歷史源流》, 台原出版社, 台北.
- 李壬癸 1991 《台灣南島語言的語音符號系統》教育部教育研究委員會.
- 1997a 〈南投縣信義鄉的布農南部方言〉, 《高雄縣南島語言》300-350.
- 1997b 〈臺灣南島民族的族群與遷徙〉, 常民文化出版社, 台北.
- 李樹義 2008 《台灣少數民族—布農》, 台海出版社(北京).
- 余錦豪·歐陽玉 2002 《神話·祭儀·布農人》, 晨星出版有限公司(台中).
- 吳天泰 2007 《台灣原住民族布導論》五南圖書出版, 台北.
- 田哲益 2002 《台灣布農族文化》師大書苑, 台北.
- 2003 《台灣原住民—布農族》台原出版社, 台北.
- 2009 《玉山的守護者—布農族》台灣書房, 台北.

- 田哲益·全妙雲 1998 《布農族口傳神話傳說》台原出版社, 台北.
- 齊莉莎 2000 《布農語參考語法》, 遠流出版公司, 台北.
- 何芳, 曾思奇, 林青春 1987 《高山族語言簡志》北京: 民族出版社.
- 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教育部 2005. 《原住民族語言書寫系統》.
- 黃應貴 2006 《布農臺族》, 三民書局, 台北.
- 黃美金 1997 〈高雄的布農語〉, 《高雄縣南島語言》, 351-410.
- Duris, P. Antoine (杜愛民)
- 1987 *Lexique de la langue Bunun en usage à Ma-hoan*. Ms.
- 1988 *Vocabulaire Francais-Bunun*. Prêtr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is. Mimeographed. [(Four gospels)
- 1990 *Pakadoon Take-vatan-to Malas-Bunun simipinaskal-to paitasan*. Translated into the Takivatan dialect of the Bunun language arranged in the chronological order] Manuscript, Mayuan.
- Jeng, Heng-hsiung (鄭恒雄)
- 1977 *Topic and Focus in Bunun*.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 No. 72.
- 1997 Bunun tense and aspect. In Elizabeth Zeitoun and Paul Jen-kuei Li(eds). *Selected papers from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stronesian Linguistics*, 455-487. Symposium Series of the Institute of Linguistics(Preparatory Office), No 1. Taipei: Academia Sinica.
- Li, Paul Jen-kuei (李壬癸)
- 1987 The preglottalised stops in Bunun. In Donald C. Laycock and Werner Winter, eds. *A World of Languages: Papers presented to Professor S.A. Wurm on His 65th Birthday*, 381-387. Pacific Linguistics C-100.
- 1988 A comparative study of Bunun dialects, *BIHP*, 59.2: 479-508.
- Nojima, Motoyasu (野島本泰)
- 1994 *The structure of verbs in Bunun*(southern dialect). MA thesis, Tokyo: University of Tokyo
- 1995 Voice in Bunun. *Tokyo University Linguistics Papers*, 14: 743-758.
- 1996 Lexical prefixes of Bunun verbs. *Journal of the Linguistics Society of Japan*, 100:1-27

### 【中文提要】

關於沒有文字的民族，用韓文來書寫它的語言，必須首先調查該語言并擬定它的音韻系統不可。因此，對布農語音韻系統李壬癸(1991)、齊莉莎(2000)、原民會(2005)所做的研究，為本論文提供了很好的基礎。

綜合這三種系統，本文創建了布農語的韓文書寫系統(JHB System)。雖然這一書寫系統具有一些問題，但這些小問題不會影響到整個書寫系統。與原民會(2005)所創的具有80%準確度的羅馬字母書寫系統相比，本文所擬定的書寫系統沒有很大的遜色。當然，在當地人試用這一系統之前，下定論還為時過早。因此，對此研究，有待不斷的努力和多角度、更深入的研究。

由于篇幅上的原因，本文在試用韓文書寫系統記錄布農語時，只局限于齊莉莎(2000)的語料。但今後，本人將把韓文書寫系統適用於台灣族群母語推行委員會(2006, 2008)、林道生(1998)、余錦豪·歐陽玉(2002)和霍斯陸曼·伐伐(2002, 188-228)中所記錄的會話、傳說、諺語、童謠、生活歌謠，用以編寫成一部《布農語韓文教材》，并進一步證明韓文書寫系統的優越性。

但當前最迫切的任務是讓當地人掌握布農語韓文書寫系統，并讓他們在實際生活中直接體驗韓文書寫系統的適用與否。要想完成這一任務，需要投入大量的時間和資金，因此，只依靠本人的微薄力量是難以實現的。深深希望，以後有志之士的參與和合作來實現此構想。

### 【主題語】

韓文，書寫系統，音韻系統，台灣，布農語，少數民族，原住民

투고일: 2010. 11. 14/ 심사일: 2010. 11. 20~12. 9 / 게재확정일: 2010. 12. 15